

# 문화자원의 경쟁력 확보

이해준

충남역사문화소장

## ‘문화, 정신, 환경’은 신세기의 중요한 화두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문화와 환경’의 문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신, 문화, 환경의 중요성은 신세기의 가장 우선하는 화두이며, 경제적 풍요에 뒤이어 정신과 문화, 자연과 인간의 공생 문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문화와 산업이 결합하여 이른 ‘문화의 산업화’내지 ‘산업의 문화화’라는 현상이 일반화하여, 우리 주변에서는 문화산업, 문화상품, 문화경쟁력, 문화전략 등등의 서로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합성어들이 자주 쓰이기도 한다. 이는 바로 현대사회의 문화자원 활용요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문화적 부가가치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잘 예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역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즉 이제 지역의 문화 자원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자기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그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타도와 달리 비교적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왔다고 평가된다.

실제 ‘충남정신 발양’ 운동이라든가, ‘인본 행정’ 구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 ‘백제문화권 개발’ 및 ‘내포문화권 개발’ 노력, ‘충남의 인물과 정신 연구’ 등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 이번 민선 3기의 공약사업 중에 보이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개설은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묶어 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창작예술의 측면에서도 충청남도의 그런 노력은 크고 작은 형태로 수없이 전개되어 그 성과들이 매우 괄목할 수준이다.

이 같은 충남의 인심과 정신문화,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충남문화·자연 자원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력들은 참으로 적절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게 진전되기 위하여는 무엇이 필요한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다양한 수요자층을 겨냥하는 정책 개발 필요

우리의 경제적 풍요와 국민의 의식 수준 향상은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즉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과 기대도 매우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요구 수준과 폭이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화예술 향유층이 과거와 같이 특수 계층에 독점되던 경향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미래사회에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별은 거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다변화된 노력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창작예술가나 전문연구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은 이제 보다 광범한 시민, 일반교양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체험과 참여라는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민들이 원하고 요망하는 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인 현실 파악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관리 정책에서 보여지는 현재의 “보존” 및 소극적 “관리”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은 앞으로 크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보다는 활용, 재해석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 강조 및 문화자원의 상품화 요구 증대문제도 또 다른 확대영역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 개념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폭이 넓혀져 유물, 유적은 물론이지만, 역사와 민속, 정신, 인물사 등등 유·무형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것이기를 기대한다.

예술 부문에서도 과거와 같은 순수 창작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탈피하여 대중화나 분야별 문화예술 영역의 향수층 확대 노력, 프로그램 운영 등등에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와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는 충청남도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각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체노력으로 극복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문화예술 활성화는 과거보다 훨씬 폭넓은 향유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창작예술의 소재를 충청남도의 역사나 문화, 정서를 토대할 경우 향수층의 참여와 후원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민선 3기의 계획 중에도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문화재 복원 등 대규모 시설투자(하드 중심)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에 더하여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 가능하기 때문인데, 문화 콘텐츠 기초자료 확보의 미진하고 하드웨어와의 연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중심의 개발이 우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 분야별 문화자원의 기초조사가 우선 필요

이 과정에서 항상 등한시하는 과제가 바로 문화 콘텐츠의 발굴·정리 노력이다. 이는 문화 정체성 확보와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기초작업이다. 자료의 조사와 발굴, 축적의 결과 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이 결정되기도 하고, 후속 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 대안의 근거자료도 부실하게 되고, 결국은 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될 수밖에 없다.

충남문화는 “충남인들이 만들어 낸 특수한 문화”이고, 오랜 역사 속에서 충남인들의 검증과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산물이다. 따라서 이들 문화지식과 정보(전통문화)들은 미래 충남의 문화 ‘자원’이자 ‘상품’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느끼고 알게 할 기초자료의 발굴과 의식화(교육, 체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광범한 기초자료의 조사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1998년 이후 중단된 이러한 기초 문화자원 조사작업들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예술 부면은 분야별로 50-100년사를 정리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방향들을 점검하게 해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나 각 시·군별로는 문화유산의 분야별 기초조사라든가, 역사·인물·정신사의 체계적 정리, 민중생활문화의 보고인 전통마을 종합조사, 토속음식, 민속, 전설, 설화, 민요 등의 조사, 나아가 생태환경, 토종(식생물)에 이르기까지 충남의 모든 자원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 조사부터 하여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중 자원활용의 가능성과 시급성, 경쟁력을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활용방안과 대책 구상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 같은, 이러한 작업의 기초 위에 충남문화의 큰 골격 중에서 도민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확인·강화하는 특성화된 자원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되, 그런 점에서 충남의 경쟁력은 대개 한국인의 참 모습과 토속 문화가 보존된 충남. 금강과 서해가 만나 이룬 고도의 백제문화, ‘선비’ ‘양반’으로 표상 되는 지성사·사상사,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의 환경과 인심 등등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 문화자원의 경쟁력과 차별화 노력

흔히 장맛만 보아도 그 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집집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내음이 있다.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역문화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

문화와 역사는 인간이 환경과의 부단한 적응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자연지리적 조건과 환경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에 적응하거나, 도전하거나, 극복하면서 자신들의 생존 방식을 선택해왔고, 그것을 바로 충남문화라 부를 수 있다. 즉 ‘충남지역에서 충남사람들이 만들고 향유한 충남의 문화’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으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경쟁력도 되고 차별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문화자원 활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개 앞에서 제시한 기초자원(문화콘텐츠)의 정리수준 미흡과 관련되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미흡으로 이어진다.

문화 콘텐츠 발굴·정리문제는 지역문화 정체성 확보의 기초작업으로 지역문화의 차별성, 경쟁성, 자원화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며, 후속 되는 문화자원 활용의 방향 결정, 정책대안의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이 작업이 소홀하면 지역문화의 특성, 경쟁력의 수준도 함께 저하될 수 있다. 그리하여 문화자원과 활용에서 본질과 외형이 서로 상충·갈등한다든가, 나아가 지역 정체성 확인보다는 보물찾기 식 일부 자료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엿보면서 포장하는 ‘무차별과 획일화’, ‘아이템 선점 경쟁’, ‘프로그램 배끼기’ 등과 같은 경향도 생기게 된다. 좀더 부연하면, ① 문화콘텐츠 발굴에 소홀 → ② 자원화 가능한 지역문화 형상화 부진 → ③ 자기 식의 문화자원 활용 방향 없고 결국 타 지역 모방 → ④ 경쟁력 감소, 지역민의 자긍심 저하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즉 “충남지역에서서만 체험할 수 있고, 집중성이 있는” 콘텐츠로 특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요구, 수요계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녀, 노·소, 내국인·외국인, 학생·전문가 등등의 대상에 따른 기호도,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소프트웨어의 내용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그 매체와 채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보화라거나, 축제·이벤트화, 교육프로그램화, 문화상품 개발, 창작예술로 연계 등등 방법은 수없이 많다고 본다,

## 문화예술의 국 승격문제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제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평가 점검할 주관 부서가 너무 약화되어 있다. 물론 곧이어 기구 개편에서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 전망되면서도, 이번 기회에 충남의 문화자원과 문화예술을 책임 맡을 문화관련局的 설치와 실무課의 재편·확대를 기대해 보게 된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구조 조정, 기구 축소화로 나아간다고 하지만 전 충남도민

이 향수의 기회를 가지며, 나아가 문화충남 인으로써의 자긍심과 가치관을 제고하는데 이러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타도에 비하여 충청남도는 업무량과 추진 사업이 많은 반면에, 주무부서의 상대적 위상이 미약하고 인력의 부족 현상도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자치문화국의 방대한 행정 수요와, 문화재·관광·문화예술 등의 폭발적인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화예술행정은 때로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든가, 고도의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상도 필요한 부서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행정인력들은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련하기보다는 주어진 업무량의 소화에도 지쳐있는 실정이다.

민선 3기에는 반드시 문화예술국의 개설 및 승격과 문화재과,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등의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성과 문화적 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데스크 포스트의 활용도 주문하고 싶다.

이제는 지방정부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자생력 확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준비와 노력을 기대한다. 지방문화역량의 제고와 지방문화의 분권화(자율화)는 이제 우리 앞에 그 커다란 몸체를 들어내고 다가섰다. 문화의 자치역량은 과연 얼마나 있나? 또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와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고 조정되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 가는 민선 3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